

北韓政治文化와 傳統政治文化의 相互關聯性 研究

— 김일성 著作類를 中心으로 —

고 성 준 · 김 영 수

제주대 · 숙명여대

第1章 序 論

1. 研究 目的 및 研究 必要性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北韓政治體制가 어떻게 생성, 유지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 의식 속에서 북한정치문화와 전통정치문화와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

즉 현재의 특이한 정치틀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 배경이 傳統的 要素와 얼마만큼 관련 을 갖고 있으며 또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外來理念으로서의 사회주의와 傳統理念으로서의 유교적 가부장제 및 신분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어떻게 모순되며 또 융화될 수 있는가를 살피고자 하며, 두 이념의 조화 또는 상호모순이 어떻게 북한에 독특한 政治的 리더쉽과 政治文化를 산 출하는가를 보고자 한다.

결국 북한정치이념 및 통치체제 속에 전통적 요소가 얼마만큼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또 어떤 요소가 거부되고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에 왜 權威主義的 政治體制가 등장하게 되는가라는 연구주제와 관련될 때 좋은 비교연구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통의 요소를 그동안 얼마만큼 잘 관리, 계승해 왔는가를 검토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

로 판단한다. 즉 조선왕조를 본바탕으로 하는 남북한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각기 다른 가정-미국과 소련-에 강제적으로 입양된 후, 모양은 같으나 성격이 다른 一卵性 쌍둥이로 자라났는지 혹은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二卵性 쌍둥이로 자라났는지, 아니면 입양가정의 특성을 배제시키면서 쌍둥이로서의 先天的 特質을 점점 부각시키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북한의 전통적 요소가 통치에 긍정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자유민주주의 사회수립에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통치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론적 배경없이 忠, 孝 등의 전통적요소만 피상적으로 강조해왔던 통치기술보다 더 세련된 통치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상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데, 관건은 사회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傳統的 思考方式을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관리, 조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研究 範圍 및 構成內容

여기서 채택한 主 研究對象은 조선노동당 공식문건인 金日成 著作(選)集이다. 북한사회의 실상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행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일단 金日成 著作(選)集의 내용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서 김일성 저작(선)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모든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이고 모든 학습의 시험과목이며, 공공시설에는 물론이고 가정마다 의무적으로 비치되어 있다. 즉 김일성 著作(選)集은 북한사회에서 행동양식과 가치판단 그리거 학문연구의 기준이 되는 성전이다. 북한은 이러한 김일성 저작(선)집을 해방 이후 지금까지 판을 거듭하여 발행할 때마다 그들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修正, 削除, 添加하여 왔다.

따라서 金日成 著作類는 이 연구의 주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적합한 연구대상이다. 1953년판 金日成 選集 총4권, 1960년판 金日成 選集 총6권, 1967년판 金日成 著作選集 총7권 그리고 1979년부터 지금까지 간행되고 입수가능한 34권의 金日成 著作集이 연구대상이며, 이를 연구주제와 관련시켜 내용분석을 하고자 한다.¹⁾

1) 지금까지 김일성 저작류 분석에 관한 연구는 ① 趙在璠, 「金日成選集 修正過程分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構成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우선 북한정치문화와 전통정치문화의 관계를 밝히고자 했다. 이 장에서는 북한정치문화 속에 전통적 요소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은 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후, 북한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요인을 정리해보았다. 제3장에서는 실제로 김일성 저작류에 나타나고 있는 전통적 요소들을 추출해본 다음, 제4장에서는 전통적 측면에서 북한정치구조 및 정치문화의 특징을 해석해 보았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정치체의 성격을 재조명했다.

第2章 北韓政治文化와 傳統政治文化와의 關係

1. 傳統文化의 變動과 持續問題

어느 정치제도라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전통적 정치문화와 완전히 단절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인간이나 사회주의적 이상사회라는 국가 목표가 모든 사회제도와 일상생활을 결정짓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문화가 형성된다는 논리는 환상일 수가 있다.

소련과 동구제국이 공산사회로 전이된 역사적 사실을 傳統社會가 깨지는 혁명적 변혁으로 인식하고 전통문화가 완전히 소멸되는 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 개혁을 분석한다면 자칫 공산사회의 심리문화체계의 상호작용을 인식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가시적 변동 속에 면면히 지속되는 전통문화의 속성들이 공산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이 의의가 있다고 본다.²⁾

(서울: 國土統一院; 1975) ② 金泰瑞, 『金日成選集 修正內容分析』(서울: 國土統一院) ③ 李昌夏, 『金日成著作集 修正內容分析』(서울: 國土統一院) 등이 거의 전부이다. 이 연구들도 選集을 중심으로 각 판별로 다르게 나타난 부분만을 추적·비교한 데 그쳐, 1979년 이래 출간되고 있는 김일성전집류 및 기타 사회과학원 산하에서 출간된 김일성 저작류는 내용분석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2) 공산주의 文化變動에 관한 글로는, Maning Nash, "Modernization: Cultral Meaning-the Widening Gap between the Intellectuals and the Processes,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정치문화의 형성요인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정치문화는 문화현상의 일부라는 점에서 歷史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 정치문화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북한의 傳統的 政治文化란 공산화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정치문화를 지칭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적 정치문화는 북한의 정치문화의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적절히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北韓 政治文化의 形成要因

그러면 북한의 정치문화형성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朝鮮朝의 儒敎文化

역사적인 요인으로서 조선조의 유교문화를 먼저 꼽지 않을 수 없다. 조선조 500여년간은 유교문화가 사회를 지배하였기 때문에 三綱五倫과 같은 儒敎的 價値觀에 의하여 행동이 규제되었고, 사상이나 생활에 준 감화와 영향은 막대한 것으로 조선인은 이 유학으로 인하여 사상이 변하고 민족적 성격까지 변화를 가져올 만큼 철저히 신봉하여 그외의 어떤 정치적·사회적 이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유교문화는 전통적 정치문화를 權威主義的 特性을 갖게 했으며, 권위주의는 북한의 정치문화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Essays on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in honor of Bert F. Hoselitz," 『Economic Development and Chltural Change』, 1977, 25, Supplement, pp.16-28; Ra Chang-Joo와 Baek Byeong-Hoon이 공편한 『Comparative Commynist Studies : Scope and Methods』(Seoul : Dae Young Moonwhasa, 1988)에 실린 Archie Beown의 "Political Culture and Politocal Change in Communist States : Introduction"(pp. 514-537), Stephen White의 "Political Culture in Communist States : Some Problems of Theory and Method"(pp. 538-552) 및 Lowell Dittmer의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Culture"(pp. 553-568)을 참조.

2) 民族主義的 性向

한민족은 단일 민족으로서 5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서 다른나라의 민족과 문화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民族的 主體的 내지 民族主義的 性向이 전통적 정치문화에 강하게 흐르고 있다. 계속된 외침에 대한 저항, 독립운동, 민족분단 등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고양시키에 충분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3) 日帝 植民統治의 影響

36년간의 식민지 통치기간에 지배했던 일제의 군국주의 문화도 북한 정치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조선조 통치체제를 붕괴시킨 다음 자리잡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위계질서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어떤 경험도 우리 민족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4) 外來 理念인 共產主義의 決定的 影響

이상의 전통적 정치문화와 더불어 북한 정치 문화형성에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이다. 현재 북한은 주체사상을 공식 이데올로기로 천명하고 있지만, 정권수립 과정에서부터 정치문화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인 공산주의였다.

북한 정권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로 수립·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全體主義的 정치문화가 북한정치문화의 특징인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第3章 金日成 著作類에 나타난 傳統的 要素들

북한사회 정치문화 속에는 문화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공산주의 요소 외에 전통적 요소가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현재 통치이념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김일성 저작류를 중심으로 추출해보고자 한다.

1. 最高指導者에 대한 絕對 無條件 忠誠

김일성 수령이 王과 다를 바 없음을 북한사회에서 출간되는 간행물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김일성 수령에 대해서는 갖가지 수식어를 붙인 최상급의 경칭과 더불어 눈에 두 드리도록 고딕강조체를 사용하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이러한 표기 관행은 왕조시대에 왕이나 왕명과 관계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반드시 上段에서 한 자를 띠어 쓰던 과거의 표기법을 상기시킨다.³⁾ 특히 이러한 표기 방식은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70년대 이후에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다.

북한주민들과 김일성과의 관계는 神과 人間의 關係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김일성 저작류 곳곳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주입되는 ‘수령님 높이 모시기 위한 4대원칙’이 ① 神格化 ② 信條化 ③ 絕對化 ④ 無條件性인 것을 보면 김일성과 북한주민들의 관계가 하느님과 같이 떠받드는 우상화된 관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저작류를 통해 흐르고 있는 首領의 중요한 역할은 政治的 生命의 부여 역할이다. “북쪽에서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가르친다. 하나는 부모가 주신 肉體的 生命이고, 다른 하나는 수령님이 주신 정치적 생명이다. 육체적 생명은 죽음으로써 끝나지만 政治的 生命은 다른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영원히 남아 있다. 노동당에 입당함으로써 수령이 부여한 정치적 생명을 얻게 된다. 따라서 영원히 정치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육체적 생명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친다.”⁴⁾는 말 속에서 최고지도자에 대한 경이와 무조건 충성의 도를 짐작할 수 있다.

2. 世襲 問題

수령을 세계관의 중심에 놓고 보는 발상은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일을 부각시키는데서 더 잘 나타난다.

“수령의 후계자문제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전도, 그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

3) 崔載賢, “北韓社會理念 속의 傳統的 要素,” 『東亞研究』 第14輯(1988.7), p. 100.

4) 조갑제, 정호승, 『金賢姬의 하느님』(서울: 考試界, 1990), pp. 102-103.

다.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국제혁명운동의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령의 후계자가 지녀야 할 징표로부터 후계자의지도체제를 세우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수령의 령도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제화하고 완성하시었다.”⁵⁾

사회주의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父子世襲問題는 왕조시대의 가부장계승 내지는 왕위계승과 같은 권위 이양의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본 정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傳統的 要素를 강하게 띠는 현상이라 하겠다.

3. 集團主義의 創出

중앙집권에 알맞는 생활방식으로 북한에서는 集團主義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49조⁶⁾와 제68조⁷⁾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에서는 집단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⁸⁾

“사람들을 집단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합니다.”⁹⁾

“개인주의와 리기주의를 뿌리빼고 집단주의사상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5) 김철희, 『주체의 인생관』(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pp. 218-219. 崔載賢, 앞의 글, p. 101에서 재인용.

6)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49조

“조선민주주의의 인민 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7)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8조

“국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8) 『金日成 著作選集』 제5권, p. 465.

9) 『金日成 著作選集』 제5권, p. 466.

그들속에서 집단생활, 특히 정치적 조직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¹⁰⁾

결국 조직생활에 참여하고, 대중의 통제를 잘 받으며, 사회공동생활의 규범을 잘 지키는 集團主義的 人間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간형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집단주의적 인간관이야말로 주체의 인생관이다. 이런 형태의 집단주의적 인간관 내지 인생관에는 氏族共同體 또는 部落共同體의 흔적이 보인다. 사실 북한사회 전체가 하나의 사회주의적 민족공동체요 지역공동체라고 볼 때, 이러한 집단주의는 오히려 당연한 사회이념인지도 모른다. 서구적 인간형으로서의 개인은 이 사회이념에서는 일단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4. 官僚主義

국가권력을 빙자한 관료들의 자의와 횡포는 식민지시대의 유습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왕조시대 이래의 傳統이다. 이 점에서는 남북한 모두 마찬가지이다. 관료들의 횡포와 세도에 대해서 김일성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비판, 지적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에서 볼 때, 권력남용과 형식주의적 병폐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관료주의는 군중의 창발적인 의견을 들으려 하지않고 군중과 리탈하여 사업을 처리하며 문을 닫아걸고 책상위에서 계획을 세우며 결정서와 명령을 내려먹이고 군중에게 호령만 하는 사업방법입니다.”¹¹⁾

“관료주의자들은 군중 속에 들어가지 않고 군중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코대를 잔뜩 쳐 들고 다니며 두마디 안팎으로 욱설만 하고 군중의 생활에 관심이 없고 자기만 제일 잘 낫고 자기의 의견이 제일 옳고 남의 의견은 다 나쁘다고 하면서 들어도 안보고 덮어놓고 열 닷냥금으로 내려먹이기만 합니다.”¹²⁾

“아무리 좋은 당정책이 나오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이 토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0) 『천리마 운동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대하여』, p. 386.

11) 『金日成 著作選集』 제1권, p. 385.

12) 『金日成 著作選集』 제2권, p. 397.

것을 집행하는 일꾼들이 관료주의적으로 일하고 당의 균중로선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¹³⁾

“모든 사업을 집행할 때에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문제를 신중히 분석하여 보지 않으며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조잡하게 처리하며 내용이 없고 겉치레만 하는 사업작품을 가리켜 형식주의라고 한다.”¹⁴⁾

이상의 몇 가지 인용에서 볼 때, 국가권력의 분산과 사회의 민주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官僚主義나 形式主義의 弊端은 쉽게 사라지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5. 家族主義를 비롯한 日常生活에서의 傳統性

일상생활에서의 전통성은 겉으로 나타난 생활관습의 전통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치관의 전통성으로 분리시켜 고찰할 수 있다. 김일성 저작류에서는 전통적인 생활관습의 長點은 취하고 短點은 비판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전통적 생활관습의 단점을 비판하는 데서 북한주민이 청산해야 할 전통을 미처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1) 家族主義

정권수립 초기,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가족주의에 대해 매우 批判的이었다.

“지방주의, 가족주의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종파주의입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것이 다 종파주의입니다.”¹⁵⁾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에는 가족주의가 나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조건은 청산되었으나 근로자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인습은 가족주의를 조장시킬 수 있는 요소로 된다. 가족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조직생활을 강화하여 가족주의의 사소한 표현과도 묵과하지 말고 비타협적인 사상투쟁을 벌려야 한다.”¹⁶⁾

13) 『金日成 著作選集』 제3권, p. 592.

14) 『金日成 著作選集』 제1권, pp. 140-141.

15) 『金日成 著作選集』 제2권, p. 122.

16) 『정치사전』(1973년판), p. 5.

그러나 주체사상을 강조한 시기부터는 오히려 사회기초단위로서의 家族에 대한 의미를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은 사회의 세포이며 인간생활의 중요한 거점이다.…… 특히 혁명하는 사람은 가정을 혁명화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¹⁷⁾

또한 북한에서의 가족 또는 가족주의는 敬老思想과도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로사상의 연장이 바로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주의의 예를 볼 때 전통적 요소에 대해 좋은 점을 택하고 단점은 버리는 북한의 입장을 읽을 수 있다.

(2) 技術神祕主義, 大學神祕主義

유교사회의 전통이 미친 영향은 배운 사람을 중시하는 풍조에서도 드러난다. 북한사회에서 지식인이 갖는 상대적 우월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비판당하지만 사회현실 속에서는 살아남아 있음을 보게 된다.

“어떤 동무들은 남의 이력서를 보고 대학졸업이라고 하면 ‘이 사람 상당한데’하고, 소학졸업이라고 하면 ‘이 사람 문화수준이 대단히 낮구만’, 이렇게 속단합니다.”¹⁸⁾

“보수주의자들은 공업이 신비하다, 과학이 신비하다, 기술이 신비하다, 기계가 신비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신비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귀신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보통사람들은 알 수 없으며 자기만이 과학도 공업도 기술도 귀신처럼 안다는 것입니다.”¹⁹⁾

위의 인용에서 볼 때, 지식인들이 북한사회에서 군림하려는 현상을 짐작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補身主義的 傾向을 읽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들의 의식수준을 제고하려는 공부와 교육에 대한 강조를 김일성 저작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 간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함의 하나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를

17) 김철희, 앞의 책, p. 137. 崔載賢, 앞의 글, p. 106에서 재인용.

18) 『金日成 著作集』 제22권, p. 601.

19) 『金日成 著作選集』 제2권, p. 241.

안하면 전달군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안다고 하여 공부도 하지 않고 전달을 부리는 사람은 오히려 공부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못합니다.”²⁰⁾

또한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려는 노력은 북한사회에도 이어져오고 있다. 이는 유교문화의 전통이 사회주의사회의 편성원리와 잘 융합되어 있음을 알게해준다.

6. 其他 關聯要素들

이 밖에도 勞東 賤視 性向, 女性의 社會的 役割에 관한 지적을 전통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노동을 천시하려는 기성세대들의 가치관을 바꾸려는 지적이 여러번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以身作則’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는 경향이 북한사회에도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걸으로는 남녀의 평등을 내세우면서도 傳統的 女性觀을 바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면,²¹⁾ 여성을 해방시킨다는 사회주의 이념과 남녀간의 엄밀한 역할 분담을 강조하는 전통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볼 수 있다.

第4章 傳統의 側面에서 본 北韓政治文化의 特徵

傳統이란 한 사회에서 오랜기간을 통해 이어져 온 독특한 행동패턴이다. 대개의 경우 전통은 커다란 사회변동을 겪을 때마다 그 전승의 양을 대폭 줄이거나 수정하게 된다.

북한의 경우 부르조아 중심의 시민혁명을 거치지 않은 채로 공산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통을 그다지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국가체제를 수립할 수 있었다. 즉 왕조시대에 지녔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 관료제의 경직성 등은 거의 그대로 잔존해 있었다.

또한 생산력 발달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社會主義 革命에 의하지 않고 소련 화물

20) 『金日成 著作集』 제19권, pp. 219-220.

21) 구체적인 예는 崔載賢, 앞의 글, pp. 111-113 참조.

열차에 실려온 정권(luggage-train regime)에 의한 사회주의적 전환이었기에 북한 사회에서는 전통적 요소가 오히려 더 짙게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이는 占領共產主義의 특징이기도 하다.

앞에서 북한정치체제 및 정치이념 속에 남아 있는 전통의 요소를 살펴 보았다. 이제 이런 전통적 측면에서 북한정치문화를 再解釋해 보고자 한다.

1. 首領觀의 傳統的 解釋

북한의 정치이념은 主體思想이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간중심의 세계관, 근로 대중의 집단주의 및 절대적 엘리트주의를 천명한 수령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首領觀이다.

북한의 당기관지가 주체사상이란 “자주적,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것인데 이는 곧 수령의 사상대로 사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²⁾라고 밝히고 있는데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김일성의 領導方法을 가리키는 부분에서 특히 김일성 수령의 유일적 지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체이지만 자연발생적으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 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확고한 자각을 가지고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최대한으로 밀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정치적 영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이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이익을 반영한 혁명사상을 내놓고 그것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는 당을 창건하고, 그의 혁명적 령도를 실현함으로써만 로동계급은 비로소 자주적인 혁명적 계급으로 되는 것이다. 로동계급은 탁월한 수령과 당의 령도를 받음으로써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인 혁명계급으로서의 참다운 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²³⁾

이 말은 결국 “위대한 김일성 수령을 영원히 우리 당의 수위에 놓고 그가 내놓은 사상과 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대대손손 관철하여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로동신문』 1972년 4월 13일자.

23) 황장엽,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근로자』 1979년 4호, p. 26.

이런 논리대로라면 북한사회는 수령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수령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수령님의 뜻에 따라 죽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사회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수령님이 세계관의 핵심이 되는 수령님의 나라, 김일성의 나라²⁴⁾인 것이다. 이는 王이나 皇帝가 사회구성의 중심이 되고 세계관의 중심이 되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유교적 전통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이같은 個人崇拜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용하도록 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교적 가치관 및 세계관은 善과 함께 무엇보다도 특히 忠(尊敬, 忠誠)을 요구한다. 중국인들과는 반대로 한민족의 충성은 善앞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동포에 대해서도 대립한다. 조선인들의 충성은 대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 그리고 왕을 포함한 윗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내부집단으로 그 범위가 엄격히 한정되어 있었다.²⁵⁾

충성을 표현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은 남한의 현대사에서도 발견된다. 이승만, 박정희, 등에 대한 제한된 개인숭배는 이의 적절한 예다. 북한의 다른 점은 이전까지 대가족이라는 협소한 범위에 한정되어 있던 충성을 전체국가에로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즉 전 북한을 單一의 巨大한 家門으로 구성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계승되어 온 支配의 安定裝置라는 의미에서 이해했다는 점이다. 강요에 의해서든 그렇지 않은 간에 오늘날 모든 북한 주민들은 도덕적인 면에서 그 내부 집단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 즉 북한 주민들에게는 忠誠이 제1의 계명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일성은 수 세기에 걸쳐 약화되고 훼손되며 왜곡되었음에도 그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은 채 타당성을 지니온 直觀的인 가치에 의지하여 자신의 절대적인 국가권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²⁶⁾

아울러 옛 조선인인 북한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새로운 추상적인 가치와 윤리보다는 한 사람의 지도자에게 충성을 바치

24) 都興列, "北韓社會變化와 主體思想," 『東亞研究』 第13輯(1988, 2), p. 159.

25) 조선의 유교적 가치질서에 대해서는 그레고리 헨더슨, 『한국: 소용돌이의 정치』(캠브리지 메사추세츠: 하바드대학 출판부, 1968), pp. 36-55 참조.

26) J. 할리데이, "북한의 수수께끼," 『New Left Review』 第127호 (1981년, 5월/6월호), p. 42.

는 것이 훨씬 마음 편한 일일지도 모른다. 종종 급진적이고 복잡한 사회변혁 기간 중에는 카리스마적 영도자가 대중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일체감을 주는 요소로 기여하곤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요약하면, 위로부터의 혁명인 占領共產主義라는 양상이 조선조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깨뜨리지 않고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가능하게 했고, 김일성은 공산화 과정에서 이 현실을 잘 이용하여 王으로 향하던 경이와 무조건적 충성을 수령을 향한 숭배와 절대적 충성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김일성은 전통의 영향력을 잘 管理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전체주의적 공산국가인 儒敎的 共產主義 國家를 탄생, 유지시킬 수 있었다.

2. 權力世襲과 傳統

평양의 사회과학 아카데미에서 1970년에 출판한 『정치사전』에는 ‘세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세습이란 일정한 지위나 부를 합법적으로 상속할 수 있는 착취 사회의 반동적인 관습이다. 본래는 노예사회의 산물이었던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독재적 지배를 영구히 지속시킬 수단으로 봉건영주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 이러한 관습은 자본주의 사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소유자나 자본가는 일찌기 봉건귀족들이 그랬듯이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관습에 의존하게 된다.”²⁷⁾

그런데 1973년 출판된 『정치사전』에는 世襲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있다.

지금 현재 김일성은 금세기의 정치지도자 중 가장 오래 통치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런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와 아침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예에서 잘 나타났듯이 많은 사회주의 국가에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이었다.

그러나 북한에서 특이한 사실은 父子世襲體制를 制度化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골치 아픈 정치적 승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김일성은 그의 큰 아들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목하고 있다. 지금 현재 김정일은 북한에서 ‘북조선의 영웅’ ‘위대한 지도자 동지’

27) 『정치사전』(1970년판), p. 414.

‘경애하는 지도자’ 등으로 칭송되고 있다. 만약 조선시대의 왕조세습체제의 관행대로 김정일에 대한 개인숭배를 성공적으로 유도해내고 그를 김일성의 정치적 후계자로 확립시키게 된다면 북한은 역사상 最初의 共產主義 王朝國家가 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부자세습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채택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비정상적 방법이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권력계승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북한이 공산화 과정에서 봉건성이 일제 식민통치의 중단 이후 그대로 북한공산주의 사회에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택동이 “중국은 봉건사회로서 그 정치는 봉건정치이고 그 경제도 봉건경제이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와 경제의 반영인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화도 봉건문화이다.”²⁸⁾라고 그의 혁명투쟁시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北韓의 封建性도 상처받지 않은 채 김일성에게 넘겨졌던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가진 상태에서 순수한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가 아닌 카리스마에 의존하는 專制主義 국가를 운영하는 김일성은 자신의 동생을 후계자로 선택했던 것 같이 보이는데, 1973년 이후 그는 갑자기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단지 1974년 부수상으로 잠깐 남아 있었을 뿐이다.²⁹⁾ 이 사실은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초의 계획이 失敗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아울러 형제보다는 아들이 더 믿음직하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의 반영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택동이 지명한 후계자 화국봉이 실각하고 탈모택동 운동을 주도한 등소평이 집권하는 등 정치지도자의 변화를 겪고 있던 와중에 중국 『人民日報』는 1980년 9월 18일~19일자에 「지도자와 인민」이라는 논설을 게재한 적이 있다. 비록 이 論說은 중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이 논설문은 북한에서는 공개되지 못했다. 이 논설은 지도자와 인민간의 본질을 논하면서 이 관계는 인격적 의존보다는 平等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민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지만 지도자는 인민을 선출할 수 없다. 또한 지도자의 종신직과 자신의 후계자 지명은 부르조아 사회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봉건적 잔재이며 인민의 주인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28) 『毛澤東 選集』 第1卷(東京:三一書房, 1960), pp. 15-16.

29) 길영환, 『남북한 비교정치론』(서울:문맥사, 1988), pp. 144-145.

일”³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人民日報』의 논리에 비춰 본다면 김정일의 등장은 북한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 ‘아킬레스의 뒷꿈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950년대의 스탈린 사후의 소련과 1970년대 말 모택동 사후 중국에서 일어났던 권력투쟁의 심각성 및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최후를 지켜 본 북한으로서는 아킬레스의 뒷꿈치가 문제가 되더라도 몸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부자세습체제를 意圖적으로 고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오랜 시험의 결과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위한 모든기준을 갖춘 가장 유능하며 가장 자격이 있는 후보로서 입증되었다고 강조한다. 그의 김일성과의 혈연관계가 김정일의 후계자 선정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정한 것은 유교적인 조선 왕조에서 출발하는 歷史的先例를 생각나게 한다. 당시 王位繼承者는 지배자의 아들 가운데서 미리 선정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부왕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왕의 맏아들이었다.

지금 북한은 유교저거인 지배자의 이상에 부합하게 김정일을 ‘혁명과 건설의 천재’로, ‘고귀한 성품과 덕을 지닌’ ‘조선인민의 자애로운 스승’으로 체계적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3. 中央執權制의 必要性

오늘날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통치의 효율성 및 경제의 합리적 계획화를 위하여 中央執權의 支配형태를 취하고 있다. 북한도 정권 수립 초기부터 중앙집권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방침은 1945년 10월 3일 행한 김일성의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라는 강의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는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니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중앙집권제란 생각할 수 없으며 반대로 중앙집권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참다운 민주주의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 민주주의적 자유와 평등은 중앙집권적 통일성에 의해서만 확고히 보장됩니다.”³¹⁾

30) 길영환, 앞의 책, pp. 145-146에서 재인용.

31) 『金日成 著作集』 제1권, p. 293.

이런 취지속에서 실시되고 있는 북한의 중앙집권제는 주체의 인간형이라는 만들어진 공산주의적 인간형과 결부됨으로써 더욱 그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主體의 人間型이 지키야 하는 사회규범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귀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모든 인민은 사회의 모든 조직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전체를 위하여 개인의 개성은 되도록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사회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태도는 프롤레타리아 獨裁說과 民主集中制에 연유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보다는 하나의 군주 아래 통일된 지배질서를 유지해 온 각종의 儒敎的 生活共同體의 전통에서 그 원천을 찾을 수도 있다.

이제까지 북한정치이념 및 정치구조에 흐르는 정치문화를 전통적 측면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요컨대, 傳統의 繼承이야말로 북한정치이념 및 정치문화의 뚜렷한 징후이며, 또한 전통요소를 취사선택하고자 하는 노력이 주체사상을 정립해 나가는 밑바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리더십 측면에서는 김일성 수령이 왕조시대의 王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전통성이 강하고, 수령의 카리스마적 권위가 김정일에게 이어자도록 오랜 기간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도 또한 그러한 계획이 북한사회에 별 큰 저항없이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사회의 封建性 持續程度를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의 특징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거치지 않은데서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통치자들이 이 점을 통치의 테크닉으로 잘 活用해 왔다는 점이다. 즉 유교적 요소를 비롯한 전통적 요소들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통치과정에서 잘 利用하고자 노력한 결과인것이다.

第5章 結 論：北韓政治體의 再照明

위에서 다룬 내용의 핵심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북한정치체제를 단순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모델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 (2) 김일성 중심의 世俗宗教的 體制가 지금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 요소를 잘 조정, 관리하면서 북한사회구성원을 동원한 결과이다.

부연하면,

첫째, 생산력 발달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지 않고, 정치·군사차원에서 외부로부터 이식된 혁명의 결과로서 얻어진 사회주의적 전환이었기에 북한사회에서는 傳統的 要素가 오히려 더 진하게 남아 있었을 것이고,

둘째, 전통적 영향력의 프리미엄을 갖지 못한 김일성으로서는 전통적 요소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거나 파괴시키는 것보다는 전통적 특성을 통치의 차원에서 調整, 管理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느꼈을 것이며,

셋째, 이의 성공적 결과가 지금까지의 통치기간을 의미하며,

넷째, 김정일 世襲體制까지 계획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한마디로 북한의 통치이념은 역사 속에 쌓여 온 인민의 생활관습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없어 부분적으로 그것을 채택하여 온 傳統的 批判的 繼承의 산물인 것이며, 그 과정이 바로 주체사상을 정립해 온 밑바탕인 것이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의 김일성의 존재는 '살아 있는 神'(living god)이다. 만일 그가 죽는다면 그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그 명칭만 바뀌게 될 뿐이다. 권력승계를 받은 김정일은 새로이 독자적인 그의 神性を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통치를 하면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문제라든가 김일성 수령 사후 과연 어떤 양상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갖가지 상상은 훨씬 단순화될 수 있다.

이제 북한에는 神性を 가진 살아 있는 神 金日成이 있고, 이 신의 말씀을 모아 놓은 金日成著作集이라는 經典이 있고, 신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 전파하는 사제단의 역할을 하는 勞動黨이 있다. 한마디로 북한은 거대한 종교단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단순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김일성주의라는 특이한 唯一神을 믿는 종교국가이다. 목한의 이러한 세속종교적 지배형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따르는 공산주의에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王朝시대의 專制主義 국가체제에 더 부합된다. 이러한 신정체제의 북한체제의 특징은 통치권의 포괄성에서 찾을 수 있다. 김일성은 인민의 정치생활, 문화생활 및 정신생활까지도 지배한다. 결국 김일성 수령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일하고 투쟁하는 인민들로 구성된 사회가 바로 북한이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특이한 체제가 북한이라는 곳에 출현했는가? 어떤 요인이 작용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에서 출발한 국가를 神政體制를 지닌 東洋的 專制主義 國

家로 변형시키게 하였는가?

정치문화 때문인가? 해방당시의 북한사회의 구조적 특징 때문인가? 소련군의 압력이라는 외세 때문에 가능했는가? 고도의 레닌식 전략 전술 때문인가? 김일성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인가? 아니면 또다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인가?

과연 어떤 요소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지 또는 어떤 요소들을 조합시켜 설명하는 것이 좋을 지는 앞으로 계속 많은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보다 분명해지리라 본다. 단지 여기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영향 즉 정치문화의 영향이 오늘날의 북한정치체제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공산주의체제를 연구할 때 채택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 중에서 歷史·文化的 傳統接近法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어떤 정치체제의 사회이든 뒤늦게 근대화의 길에 오르게 된 사회는 그 나름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지닐 뿐 아니라, 그러한 전통적 요소가 공산혁명과 그 후속정권의 수립, 전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점이다.

북한의 독특한 정치문화와 사회조직을 분석하는 데는 이 접근시각이 적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소련이나 중국의 모델을 모방해나가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이른바 자주노선을 선언하고 독특한 유형의 근대화를 추진해왔기 때문에 북한을 단순히 어느 선진 모형으로 수렴되는 사례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은 해방과 더불어 폐쇄성향으로 기울어지다가 중소분쟁의 틈새에서 자주책으로 등거리 외교, 자주노선을 모색하던 중 주체사상을 내세워 김일성 唯一體制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이념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주의체제를 도입하여 동유럽의 공산위성국가들과 유사한 변화를 추진하는 듯 했으나, 주체사상이라는 폐쇄정책의 결과로 하나의 근대적 전통사회인 神政體制的 專制主義 국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는 또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새로운 정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전통적 정치문화의 여러요소들은 적절히 원용시켜 나간 결과이기도 하다.

전통적 정치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북한정치문화의 특징을 정리하며 결론에 대신한다.

(1) 북한의 통치이념에는 傳統的 要素가 사회주의체제에도 불구하고 진하게 남아있다. 즉 북한정치체제는 사회주의체제에다 전통적인 지배구조를 接合하는 선에서 형성되었다.

(2) 유교적 정치문화는 북한 공산화과정에 肯定的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세습문제의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3) 김일성은 북한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정향을 거스르지 않고, 통치의 정통성과 효율성 창출을 위해 傳統管理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외부세계와 차단되어 있고, 조선시대-일제시대-해방을 겪는동안 폐쇄사회만 경험했고 특히 집권자의 교체를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북한주민의 특성을 잘 이용했다.

(4) 그 결과, 현재 북한정치문화는 傳統的 權威主義 및 民族主義的 性向, 그리고 理念的 教條主義 性向을 띠고 볼 수 있다.